

김선빈 “부상? 걱정마세요”

삼성전 아찔한 충돌
‘염좌’ 진단에 안도
“올스타전 뛰고싶어”

**2012
paldo
팔도 프리미엄**
‘무동 메시’ 김선빈
이 부상을 털고 올스
타전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KIA 김선빈은 15일 삼성과의 원정 경
기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선빈은 4회 2사에서 볼넷으로 출루
한 뒤 안치홍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때 훔을 파고들다가 아웃됐다. 이 과정에
서 삼성 포수 진갑용의 무릎에 얼굴을 부
딪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넥센 암드리지의 타구에 얼굴
을 맞아 코뼈와 광대뼈 골절을 당했던 전
력이 있는 만큼 아찔한 장면이었다. 곧바
로 병원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은 김선빈
은 염좌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한시를 놓
았다. 시즌이 끝난 후 수술했던 부위를 교
정하는 시술을 해야 하지만 남은 시즌 출
전에는 지장이 없다.

일단 김선빈은 17일 엔트리에서 제외
됐다. 선동열 감독은 두산과의 3연전에서
김선빈에게 휴식을 줄 계획이다. 선 감독
이 전반기 타자 MVP로 꼽을 정도로 팀
타선의 핵심 선수지만 무리를 시키지 않
겠다는 방침이다.

“움직일 때 코가 조금 울리지만 큰 이
상은 없다”고 밝힌 김선빈은 17일 가볍게
웨이트를 하면서 몸을 풀었다.

뜻밖의 휴가를 얻은 김선빈이지만 21
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은 육
심이 남다. 김선빈은 올스타전과 인연이
있으면서도 또 없다.

2010년 감독추천으로 처음으로 올스타
전에 출전한 김선빈은 지난해에는 베스
트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생애 두 번
째 올스타가 됐다. 올 시즌에도 감독추천



을 받으면서 세 번째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올스타전에서 김
선빈은 한번도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9회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2010
년에는 연장에 대비해 투수로 준비를 했
지만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2011년에
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코뼈와 광대뼈 골
절 부상을 당하면서 아쉬움 속에 올스타
타이틀을 반납했다. 올 시즌 다시 한번 기
회가 왔지만 경기 1주일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선빈의 목표 중 하나는 ‘꼬꼬마 키스

론’ 봄비인 안치홍과 올스타전에서 호흡
을 맞추는 것. 베스트 10으로 선발 출전하
는 안치홍이 첫 타석에서부터 성적을 내
MVP후보로 계속해서 경기에 나설 경우
가능한 상황이다.

김선빈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김선빈은 “올스타전에 나가면 투수를
해보고 싶다. 감독님에게 투수 시켜달라
고 해야겠다”고 웃었다.

화순 고재학시절 팀의 중심타자로 맹
활약했던 김선빈은 140km/h 넘는 공을 던
지던 팀의 에이스이기도 했다.

부상 악재를 딛고 김선빈이 세 번째 올
스타전에서 웃을 수 있을까?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클라레 저그’ 잡는다

〈은빛 주전자·우승컵〉

브리티시 오픈 내일 개막

카브레라와 동반 플레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골프대
회 브리티시 오픈(디 오픈)이 19일(현지시
각) 영국 랭커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41회째를 맞는 디 오픈(총상금
800만 달러)에는 지난해 웹피언 대련 클라
크(북아일랜드), 1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을 노리는 타이거 우즈(미국) 등 내로라하는
전 세계 골퍼 156명이 출전한다.

이들은 우승자에게 주는 은빛 주전자 ‘클
라레 저그’를 가져가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쟁 대결을 벌인다.

올해 대회 장소인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링크스 골프장은 1926년 처음으로 브
리티시 오픈을 유치한 이후 올해까지 11차
례 대회를 치렀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01년 대회에서는
데이비드 뷰벌(미국)이 이븐과 274타로 우
승했다.

해변에 위치한 이 코스는 깊은 러프와 200
개가 넘는 벙커로 무장하고 선수들을 기다
린다.

대회 기간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선수들
은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올해 코스는
파70에 전장 7천 860야드로 세팅됐다.

한국(계) 선수로는 최경주(42·SK텔레

콤), 양용은(40·KB금융그룹), 김경태(26·
신한금융그룹), 배상문(26·캘러웨이), 재미
교포 캐빈 나(29·타이틀리스트), 존 허(22)
등 6명이 출전한다.

J골프가 1~4라운드를 생중계한다.

한편 최경주는 1라운드에서 2009년 미스
터스 우승자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경주와 카브레라,
로스 피셔(잉글랜드)를 같은 조로 편성했다
고 밝혔다. 최경주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오
후 9시32분 티오프한다.

양용은은 제이미 도널드슨(웨일스), 빌 하
스(미국)와 함께 오후 4시20분 경기를 시작
한다.

/연합뉴스

2014 전남도체육대회

무안에서 열린다

2014년 제5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무안에
서 개최된다.

무안은 “그동안 무안군 체육회와 무안군
의회,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전남체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상·축구 등 20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시설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 무안군이 오는 2014년 4월에 개최되는
전남체전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무안의 첫 전남체전 개최다.

그동안 전남체전은 목포, 여수, 순천, 광
양 등 4개 시와 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윤번제로 개최되어 왔으나 보성, 강진, 고
흥, 영광, 화순, 나주, 구례에 이어 2013년
장흥 그리고 2014년 무안 개최가 확정됐
다.

무안은 목포대, 초당대와 전남체종·고의
체육시설을 활용해 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
이다. 메인스타디움과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무안스포츠파크도
갖추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맨유’ 세계서 가장 비싼 스포츠팀

미국 ‘포브스’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이하 맨유)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가 높은 스포츠팀이라고 미국 경제전문
지 포브스는 17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포브스는 맨유의 구단 가치를 22억3
천만 달러(약 2조5천578억원)로 평가했
다. 2위에는 18억8천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스페인 프로축구 클럽 레알 마
드리드가 올랐다.

◇포브스 평가 구단 가치 상위 10팀

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축
구) 22억3천만 달러 2. 레알 마드리드(스
페인 축구) 18억8천만 달러 3. 뉴욕 양키
스(미국 야구) 18억5천만 달러 멀러스
카우보이스(미국 NFL) 5. 위성던 레드
스킨스(미국 NFL) 15억6천만 달러 6.
LA 디저스(미국 야구) 14억 달러 뉴잉
글랜드 패트리어츠(미국 NFL) 8. FC 바
르셀로나(스페인 축구) 13억1천만 달러
9. 뉴욕 자이언츠(미국 NFL) 13억 달러
10. 아스널(잉글랜드 축구) 12억9천만
달러

/연합뉴스

정광중 박건영 3관왕

장관기 역도대회

정광중 박건영(2년)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기 역도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박건영은 17일 인제 융하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
생역도경기대회 여중부 44kg에서 인상(43
kg), 유흥(55kg), 합계(98kg) 1위를 차지하
며 3관왕을 차지했다.

48kg에 출전한 김은영(정광중 3년)은 인
상(45kg), 유흥(62kg), 합계(107kg)에서 3
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월5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삼주해수욕장 8월5일
(8:00~16:00) 무지개산악회 8월5일(일)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8월5일(일)
(8:00~16:00) 광주한빛산악회 남해 금산 보리암 산행

▲광주